

# 전주형 아동친화도시 정책 우수성 인정

### 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

전주시가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기구인 유니세프로부터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을 인정 받았다.

시는 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4년이다.

유니세프 상위단계 인증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도시를 대상으로 인증기간 4년 동안의 변화와 이행 실적을 평가해 이전보다 발전된 아동친화환경을 조성한 도시에 부여되는 추가 인증 제도다.

시는 지난 2017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4년 동안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시민으로 존중받고 도시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전주형 아동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차별화된 아동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에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시는 2026년까지 4년 동안 '아동이 시민으로 존중받고 주인이 되는 도시,

아호 전주'를 비전으로 아동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가정환경부터 사회적 성장환경까지 전 분야를 아동이 중심이 되고,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가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완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상력을 키우는 아호 놀이터 확대 △함께 성장하는 전주형 창의학교 활성화 △아동의 시정참여와 권리존중 시스템 구축 △양질의 돌봄공간 확충과 아동학대 등 보호체계 강화 △아동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아호 생태숲놀이터 △아호 책놀이터 △아호 예술놀이터 △아호학교 △아호 부모교육 등 그간 추진해온 아호 5대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4차산업 유망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아호 미래학교교실을 포함한 아호 6대 정책으로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호 6대 정책과 함께 모든 아동이 일상 속에서 온·오프라인 정책참여가 가능하도록 아호 아동정책

참여단을 구성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학대 등 보호권 중심의 아동권리 교육을 아동기본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응 가능한 공공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아빠의 기구 등 차별 없는 성장을 돕기 위한 전주형 맞춤형 복지정책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공원·어린이 놀이시설 등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34개 중점사업을 담당하는 18개 추진부서와 4개 지원부서 등 총 22개부서 27개 팀이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동과 보호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아동정책 포럼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전주형 아동친화정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아동친화도

시의 핵심을 '놀이 도시'로 정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숲속에서 맘껏 뛰놀며 모험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아호 생태숲놀이터 △책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는 아호 책놀이터 △예술이 놀이가 되고 일상이 되는 아호 예술놀이터 △스스로 찾고 함께 배우며 미래사회를 주도할 청소년 아호학교 △모든 시민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기 위한 아호 부모교육 등 아호 5대 정책을 펼쳐왔다. 또 전국 최초로 아동 놀이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시는 아호 5대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호 숲놀이터와 아호 책놀이터, 아호 예술놀이터, 아호 학교, 부모교육, 아호 미래창의교실 등 6대 아호정책을 중심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시민으로 존중받고 도시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푸드, 이마트 에코시티점 입점

### 김승수 시장, 현장 방문 전주푸드 생산농가·이마트 관계자 격려

전주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이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해 에코시티 등 전주 북부권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전주푸드 매대가 지난 10일 이마트 에코시티점에 입점했다. 이곳에서는 연간 전주지역 40여 농가에서 생산된 채소류와 과일 등 50여 품목이 판매 예정이다.

시는 전주푸드의 이마트 에코시티 입점을 통해 신도시인 에코시티 주민들의 건강한 지역 먹거리 접근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전주지역 농민들이 농산물 판로 확대로 지역 농가의 수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마트 에코시티 점 방문해 전주푸드 생산농가와 이마트 에코시티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에코시티에 이마트가 개장한 이후 지역의 우수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이마트에서 판매공간과 매대 등을 지원하고, 전주푸드에서는 출하농가 선정·관리와 포스 시스템 구축 등을 맡기로 했다. 또, 조합공동법인에서는 이마트 입점을 위한 코드개설 및 판매시스템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전주푸드 입점이 이뤄지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푸드 이마트 입점을 지역사회와 대형마트 상생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농가 판로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사람·동물 함께 행복한 전주동물원 만든다

### 시, 올해 생태동물원 조성사업 추진... 김승수 시장, 현안사업 추진상황·안전관리 점검

과거 쇠창살과 콘크리트벽으로 슬픈 동물원으로 불렸던 전주동물원을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동물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이 올해 완료된다. 전주동물원은 정문 지붕과 노후화된 건물, 화장실의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갖추게 된다.

전주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주동물원을 만들기 위해 올해 △코끼리사 조성사업 △초원의 숲 조성사업 △천연기념물보존관 건립 △관광안내소·매표소 신축 △국민안심공중화장실 신축 등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오는 10월까지 총 62억 원을 투입해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물원 내 도화원과 중앙잔디광장 일원에 각각 코끼리사와 초원의 숲을 조성한다.

기존 코끼리사 옆 옛 도화원은 코끼리가 편안하게 자낼 수 있는 보금자리로 조성된다. 코끼리사의 경우 오랜 시간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다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이 추진된 이후 흙과



김승수 전주시장은 14일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 중인 전주동물원을 찾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동물원 내 28개 동물사의 사육환경 등을 점검했다.

모래로 된 바닥에서 살게 된 코끼리에게 분래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갖춘 새로운 집으로 변신을 한다.

코끼리사 바로 옆 옛 중앙잔디광장에 조성되는 초원의 숲에는 전주동물원의 새 가족이 될 얼룩말이 뛰어노는 초원과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시는 올해 독수리와 수리부엉

이 등 맹금류 천연기념물 중 영구장에 판정을 받은 개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천연기념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전주동물원 내에 천연기념물 보존관도 건립한다.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에는 국비 10억5000만원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대형방사장 2개소와 소형방사장 3개소 등 약 5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광안내소와 매표소를 신축한다. 그리고 연내 공사 인건에 불법촬영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위생·청결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공중화장실도 신축한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 중인 전주동물원을 찾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동물원 내 28개 동물사의 사육환경 등을 점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과거 단순한 동물 전시장이자 슬픈 동물원이었던 전주동물원이 이제는 동물이 주인공인 공간이자 시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났다"면서 "동물은 단순 불거리가 아닌 인간과 교감하는 존엄한 생명인 만큼 앞으로도 동물복지와 생태, 종 보존에 힘써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도시,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생태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저소득층 100가구 대상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각종 재해로 인해 자방이 무너져 내렸거나 벽면에 곰팡이가 피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집을 고쳐주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중순부터 10월까지 총 5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기준중위 소득 50% 이내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자방 개량과 도배·장판 교체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2년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희망자는 이달 2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거복지과(063-281-5247)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

전주시가 도로 위를 달리며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35개 동 주민센터와 시청 맑은공기에너지과(현대해상 빌딩 4층)를 통해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규모는 총 89억6000만 원으로, 이는 노후경유자동차 5600여대를 폐차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18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예산 소진시까지 시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우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로, 접수마감일

기준 전주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라 결정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맑은공기에너지과 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대상자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28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와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5월 12일까지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